



이달의 으뜸중기제품

지오나스 수면유도 LED 스탠드

LED 밝기 낮·밤 다르게 조절 ... '꿀잠' 책임진다

박승열 지오나스 사장은 2007년 LED(발광다이오드)조명 사업을 시작한 뒤 밤에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일이 많았다. 유망산업이라고 해서 LED조명 사업에 뛰어들기는 했는데, 제품을 만들어도 막상 팔 곳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 사장은 “요란한 알람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가볍고 개운하게 깨어난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수면모드’ 기능은 저녁노을처럼 빛이 20분간 서서히 약해져 자연스럽게 수면을 유도한다.

한낮 햇빛처럼 밝고 강한 빛을 내는 기능은 이 제품의 핵심이다. 그는 “숙면을 취하려면 낮에 충분한 햇빛을 받아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이 생겨야 하는데, 실내 생활만 하다 보면 세로토닌 생성이 억제될 수 있다”며 “조



박승열 지오나스 사장이 경기 군포시 본사에서 수면유도 LED 스탠드 ‘아이코자 플러스’를 설명하고 있다. 안재광 기자

자연스런 기상·취침 도와 6가지 색으로 안정 효과

명 밝기를 1만럭스까지 올리면 몸속에서 세로토닌 분비가 활성화된다고 말했다. 하루 30분에서 한 시간 정도 한낮 햇빛 수준의 빛을 받으면 밤에 잠이 훨씬 잘 온다는 설명이다.

흰색뿐 아니라 6가지 색을 넣어 ‘컬러테라피(색채치료)’에도 활용

할 수 있다. 박 사장은 “빨강은 활력 증진, 주황은 긴장 이완, 노랑은 우울증 해소, 초록은 스트레스 완화, 파랑은 학습효과 증진, 보라는 심신 안정 등의 효과를 낸다”고 설명했다.

◆TV용 게임·휴대폰 충전기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인 박 사장은 1994년 창업한 뒤 다양한 사업에서 성과를 냈다. 창업 초기 대기업으로부터 개발 용역을 받아 군에 납품하는 무기를 만들던 그는 1997년 LG전자 TV에 들어가 게임기 모듈을 만들어 한 달에 10만개 이상 납품하기도 했다. 당시 LG전자는 TV 안에 축구 크리켓 체스 테트리스 등 16개의 게임

을 넣어 남미 동남아 러시아 등 주로 신흥시장에서 팔았는데 호응이 좋았다고 한다.

1990년대 후반에는 스티커 사진 자판기를 만들어 재미를 봤다. 일본에서 유행하던 것을 들여와 한국 시장에 맞게 재구성해 ‘스누비’란 브랜드로 팔았다. 비슷한 시기 내놓은 휴대폰 충전기도 히트 상품이다. 이 제품은 아직까지 팔리고 있다.

박 사장은 “앞으로 힐링과 충전기 분야에 집중하겠다”며 “규모는 작지만 급여나 복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회사를 일구는 게 목표”라고 덧붙였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제품’은 이메일(art@hankyung.com)로 응모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8월의 으뜸중기제품 △태양산업조명의 LED 완전방수등(032)683-4501 △아도니스글로벌의 환방지 기능을 가진 얇은 마루(02)798-3811 △지오나스의 수면유도램프 아이코자플러스(031)455-3140 △라이브러스트의 예술로프리미엄(063)465-2506

30년 넘은 가족기업 ‘명문 장수기업’으로 육성

중기청, 자금·세제 지원

중소기업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30년 넘은 가족기업 가운데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해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명문 장수기업의 개념과 기준을 정한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도입한다고 29일 발표했다. 명문 장수기업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세대대를 이어 지속적인 존속 및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중견기업이다.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매출·고용·납세) △지속 가능성(혁신 역량·재무 건전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글로벌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하도록 연구개발(R&D) 수출 인력 정책자금 등 정부 지원에서 우대를 받는다. 사회·경제적 기여도를 엄격히 평가해 세제 우대도 적용한다. 아울러 중기청은 △한국장수기업협회(가칭) 신설 △기업 후

계자 육성 프로그램 개발 △지역별 기업승계지원센터 설립 등을 추진한다.

중기청은 내년 상반기부터 중소기업에 명문장수기업 확인 운영요령을 시행하고, 중견기업에도 관련 법률에 따라 특례 규정을 신설, 적용할 계획이다.

명문 장수기업은 독일 클루스, 미국 허쉬처럼 전통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육성해 한국 경제의 중추로 키우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창업 2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은 57개국에 7212개가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업 역사가 짧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두산 동화약품 몽고식품 광장 보진제 등 7개뿐이다. 2012년 기준으로 60년 이상 된 기업도 184개에 불과하다.

중기청 관계자는 “가족기업이 장수기업으로 발전하려면 폐쇄적 후계 구도와 기업의 지속적 발전 사이의 간극을 줄여주는 게 핵심”이라며 “중소·중견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추로 성장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의 책임을 다하도록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추가기자 gychu@hankyung.com

www.golfshow.kr

2014 한경 창간 50 골프박람회

HANKYUNG GOLF SHOW

10.9(목) ~ 10.12(일)

SETEC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

관람 안내

전시 품목 골프장비
골프클럽, 골프백, 샤프트, 그림, 액세서리 등
골프패션
골프웨어, 모자, 장갑, 골프화, 양말, 선글라스, 벨트 등
골프인프라
골프장 / 연습장 시설장비 및 관련기자재, 스크린골프시스템 및 관련기자재 등
골프테크닉
스윙분석기 / 분석기, 거리측정기, 스윙연습기, 퍼팅연습기, 퍼팅매트 등
골프서비스
골프여행상품, 온라인부킹서비스, 골프보험, 회원권거래, 해외관광청, 골프리조트 등
기타
협단체, 골프매거진, 골프아카데미, 대학(골프관련학과), 골프교육기관 등

부대 행사 관람객 참여 이벤트
- 미니퍼팅 대회 등 관람객 참여 이벤트
- 관람객 경품 행사 등

참관객경품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퍼터, 골프공 등 다양한 골프용품
* 상기 경품내역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입 장 료 - 3,000원(운영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 홈페이지 사전등록자, 경로자(65세 이상), 청소년(고교생 이하), 장애우, 국가유공자 등 무료입장
- 사전등록 : 온라인등록시 무료입장(홈페이지 참조 www.golfshow.kr)
- 등록기간 : 10월 8일(수)까지

문의 한국경제신문 미래전략부
TEL 02-360-4518/4528 FAX 02-360-4503
E-mail ss@hankyung.com

주최 | 한국경제신문

“인재는 기업이 만들어... 직원 교육 고민해야”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

성명기 이노비즈협회장(사진)은 29일 “공무원이 되겠다고 수십만 명이 공무원시험에 몰려드는 현실에서 창업을 활성화하고 혁신기업의 창조성을 북돋는다는 것은 공허한 얘기”라며 “대학 입시를 비롯해 사회 전반의 교육 시스템을 먼저 뜯어고치지 않는 한 창조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08년 ‘도전’ 이후 6년 만에 자전적 에세이 ‘열정’을 출간한 성 협회장은 “스티브 잡스(애플 창업자)나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 창업자) 같은 ‘혁신의 아이

론’은 한국적 기준으로 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들이 한국에서 컸다면 어떻게 좋은 대학을 가고 창업을 하겠느냐”며 “변별력이 크지 않은 수험능력시험과 공부 이외 다른 분야를 배제해 내신으로 대학을 가는 지금의 교육시스템을 유지한다면 한국 대학에서 창의성 있는 인재를 받을 기회가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소기업들도 인재들이 자주 떠난다고 불평만 할 게 아니라 남아있는 직원들을 어떻게 교육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협회장은 자신이 창업한 회사인 여의시스템을 예로 들며 “근무기간이 5년을 넘은 직

원은 해외 배낭여행을 보내주는데, 다른 부서 직원들과 팀을 이루고 여행사를 통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 직원들 사기가 높아질 뿐 아니라 부서 간 소통까지 원활해져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 “사내 학점제를 운영해 외국어, 최신 기술 트렌드 등 교육을 성실이 이수하면 연간 성과급의 20%를 가져갈 수 있다”며 “인재는 기업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소기업일수록 직원 복지나 교육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존 직원들의 수준을 높여준다면 신입직원의 수준도 같이 올라가 큰 자산을 얻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안재광기자 ahnj@hankyung.com

한국렌탈, 산업용 청소기 대어

렌탈 전문업체 한국렌탈(대표 엄윤기)은 산업용 청소기 및 산업용 포장재 공급사인 다이버스코리아(지사장 맹길명)와 손잡고 산업용 청소기 대어 사업을 시작한다. 보행식 탑승식 등 기업에서 쓰는 대형 청소기(TASKI)를 장·단기로 빌려주는 사업이다. 건설·건자재 전문기업 아이에스동서의 계열사인 한국렌탈은 PC 복합기 등 정보기기 렌탈 부문 국내 1위 기업으로 3500여개 기업에 약 14만대의 컴퓨터를 대어왔다.



골드바 유통거래 상생 협약 동반성장위원회는 29일 서울 구로구 키콧스벤처센터에서 한국조폐공사 한국금협회와 함께 골드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식을 열었다. 왼쪽부터 김화동 한국조폐공사 사장, 안종영 동반위원장, 유통수 한국금협회장. 동반성장위원회 제공

대림통상, 이라크서 수출

육실 전문기업 대림통상은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의 국민주택 10만가구에 수전금구(수도꼭지 세면대 샤워기 등)를 단독 공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4800가구에 처음 납품을 한 데 이어 향후 5년 동안 총 10만가구에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LG하우시스, 인테리어 자재 쇼핑몰 열어

LG하우시스가 건자재 업계에서 처음으로 인테리어 자재 온라인 쇼핑몰 지인몰(z-inmall.com)을 열었다. 창호 바닥재 등 인테리어 자재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직영 온라인 쇼핑몰이다. 다른 쇼핑몰에서 자재를 파는 경우는 있었지만 자재회사가 직접

온라인 쇼핑몰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인몰은 발코니 창호와 시스템 창호, 지아소리잠, 지아마루 등 LG하우시스의 제품을 판매한다. 가구, 욕실 및 주방용품, 소품 등 인테리어 제품도 판매한다. 김용준기자 junyk@hankyung.com